



#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

**배찬권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 
다자통상팀 부연구위원  
ckbae@kiep.go.kr

**김정곤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 
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 
jgkim@kiep.go.kr

**금혜윤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 
지역통상팀 전문연구원  
hykeum@kiep.go.kr

**장용준**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 
yjjang@khu.ac.kr



## 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

-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사후적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.
  -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구하여 칠레, ASEAN, 미국, EU 등 세계 45 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하였고, 지속적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장해가고 있음.
  - 그러나 FTA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어,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가 사후적으로 국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임.
-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가 장기적 경제성장에 이르는 경로로서 수출과 수입, 해외직접투자, 그리고 생산성과 고용에 미친 영향을 조명함.
  - 우리나라 기발효 FTA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FTA의 수출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, 그나마 FTA 발효 후 경과기간이 가장 긴 한·칠레 FTA에 집중되어 있음.
  - FTA는 교역과 해외직접투자의 확대, 그리고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므로 FTA의 수출 또는 무역수지 효과만을 강조한 경제적 효과 분석은 FTA의 실효성에 대한 그릇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음.
  - 데이터 제약으로 2011년과 2012년 발효된 한·EU, 한·미 FTA를 제외한 한·칠레(2004년 발효), 한·싱가포르(2006년 발효), 한·EFTA(2006년 발효) 그리고 한·ASEAN FTA(2007년 발효)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함.

## 2. 조사 및 분석 결과

### 1) FTA 발효 전후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 간 교역 동향

- 우리나라와 기체결 FTA 상대국과의 교역은 FTA 발효와 더불어 확대되었고, 이 같은 추세는 세계경기 침체로 교역이 부진했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이어짐.
  -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, 수입 그리고 교역(수출+수입)은 각각 연평균 9.8%, 10.4%, 10.1%씩 성장한 반면, FTA 체결국과는 각각 14.7%, 10.7%, 12.8%의 증가율을 기록함.

-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을 기점으로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됨.
- 한·칠레 FTA 발효 후 원자재 수입 증가로 대칠레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었으나, FTA 체결 당시 우려되었던 국내 농업 부문의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.
  -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한 반면, 구리 등 원자재 수입이 크게 늘어나 대칠레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됨.
  - ‘작물재배업’에서 수입이 소폭 증가했고 ‘고기, 과일, 채소 및 유지가공업’에서는 FTA 발효 이후 오히려 수입 증가율이 떨어짐.
  - 그러나 돼지고기와 포도는 FTA 이후 각각 연평균 11.4%와 33.6%로 수입 증가세가 두드러짐.
-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교역은 FTA 발효 시점부터 증가세가 가속화됨.
  - 한·싱가포르 교역은 FTA 발효 전인 2000~05년 사이 연평균 5.2% 증가하였으나, FTA 발효 시점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연평균 11.7%로 확대됨.
  - 싱가포르는 FTA 체결 이전부터 이미 대부분의 품목에서 무관세였으므로 FTA 이후 양국 간 교역 확대는 FTA로 인한 관세철폐 효과로 설명될 수 없음.
  - 그보다는 FTA가 관세 감축 외에 양국 간 호혜적인 교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역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됨.
- 한·EFTA FTA 발효 후 수출보다는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  - 우리나라의 EFTA 국가에 대한 수출은 주로 선박과 같은 대형 수주실적에 의존하여 해마다 큰 폭의 변동을 보임.
  - EFTA로부터의 수입은 다양한 산업에서 이루어지는데, 특히 FTA 발효 이후 ‘전자부품 및 전동기, 발전기 및 전기변환·공급·제어 장치’ 같은 자본재 수입이 크게 늘어남.
- 우리나라와 ASEAN의 교역은 FTA에 따른 양자 간 경제교류의 활성화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.
  - 한·ASEAN FTA(상품분야) 발효 전인 2000~06년 사이 연평균 8.3%의 증가율을 보였으나, FTA 발효 이듬해인 2008년에는 전년대비 25.5%로 크게 증가함.
  - 2009년 교역은 세계경기침체의 여파로 다소 줄었지만, 2010년과 2011년에는 전년대비 각각 29.7%와 28.4%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.

## 2)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교역 효과 추정 결과

- FTA의 수출 및 수입 증대 효과로 교역 규모가 평균 100% 이상 늘어났고,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화된 것으로 추정됨.
  - 특히 칠레와 ASEAN 국가로 원자재 공급처를 전환하고, EFTA 국가들로부터 자본재 수입을 늘림에 따라 FTA의 수입 증대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남.
  - 기발효 FTA의 양자 간 교역에 대한 효과를 각 FTA별로 살펴보면, 우선 수출 증가율 면에서 한·싱가포르 FTA가 가장 컸고, 그 다음 한·칠레 FTA, 그리고 싱가포르를 제외한 ASEAN 국가들과의 FTA순임.
  - EFTA 국가와의 FTA가 우리나라의 대EFTA 수출에 기여했다는 실증적 증거는 찾을 수 없었고, 수입 증가율에 대해서는 한·EFTA FTA를 포함한 모든 개별 FTA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.
- FTA 체결 이후 나타난 양자 간 교역의 확대는 대체로 기존 제3국과의 교역이 FTA 체결국으로 전환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됨.
  - 개별 FTA별로 살펴볼 때, 한·칠레 FTA의 무역전환 효과와 한·싱가포르 FTA의 무역창출 효과가 두드러졌고, 한·ASEAN FTA도 제3국과의 교역량 감소 없이 양국 간 교역을 확대시킨 것으로 분석됨.
- FTA 발효 이후 수출의 절대적인 크기는 물론 수출 품목의 다양성이 증대되어 FTA가 수출의 외연적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밝혀짐.
  - 기업별 데이터를 이용한 FTA 이후 국내기업 수출활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, FTA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수출기업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, 수출액 측면에서도 신규 수출기업의 성장률이 더 높게 나타남.
  - FTA 발효 이후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율이 대기업의 수출 증가율보다 더 높아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이 총수출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남.
  - 2009년 세계경기침체기의 기업 수출활동을 조사한 결과, 중소기업의 수출 감소율이 대기업보다 크게 나타나 거시경제의 부정적 충격이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.

## 3) FTA 발효 전후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 간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동향

- FTA 발효 이후 FTA 체결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(Outward FDI)는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임.

- 칠레의 경우,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나 FTA를 계기로 광업 부문에서 투자가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남.
  - 대싱가포르 투자는 주로 금융업, 전문서비스업, 수상 운송업에서 활발하였고, 그동안 투자 실적의 없었던 EFTA 국가에 대해서는 2006년 FTA 발효 이후 전문서비스업 등에서 우리나라의 투자가 증가함.
  - ASEAN은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 중 10%가량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FTA 발효 이후 원유와 천연가스, 광업 그리고 1차 금속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.
- 외국인직접투자(Inward FDI)는 FTA를 기점으로 늘어나고 있지만,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자와 비교할 때 증가폭은 크지 않고 주요 투자 부문도 서비스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   - 칠레는 FTA 발효 이듬해인 2005년부터 우리나라의 유통과 물류업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나 투자 규모는 매우 작은 편임.
    - 싱가포르와 EFTA 역시 FTA 발효 이듬해인 2007년에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는데, 싱가포르는 금융업과 부동산업 그리고 EFTA는 유통과 전문서비스업에 주로 투자함.
    - ASEAN 국가로부터의 투자는 금융업과 부동산업 같은 서비스 부문에 편중되어 있는 가운데, 투자규모는 FTA 발효 이듬해인 2008년부터 오히려 줄어들어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1.4%에서 2010년 4.4%로 감소함.

#### 4)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효과 추정 결과

- FTA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를 촉진시켰으며, 이와 같은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강화됨.
  - FTA를 계기로 후진국으로는 저렴한 생산요소의 확보를 위한 수직적 해외직접투자, 선진국으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수평적 해외직접투자가 활성화됨.
- FTA는 주로 선진국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됨.
  -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나누어 FTA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, 선진국의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FTA를 통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됨.
  -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FTA 발효 이후 소득 수준이 높은 싱가포르와 EFTA 국가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증가했다는 동향 분석의 내용과 일치함.

## 5)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생산성 및 고용 효과 추정 결과

- 고정효과모형 추정 결과에 따르면, 기업 생산성의 측정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대체로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과 수출기업의 생산성, 그리고 고용 간에 긍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함.
  - 수출과 생산성, 고용 간의 양(+)의 상관관계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 FTA가 모두 발효된 2007년 이후에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.
  - 사용한 생산성 지표에 따라, 전체 분석기간에 걸쳐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수출과 생산성과의 관계도 2007년 이후부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관계로 발전함.
- 이중차분모형 추정 결과에 따르면, 우리나라 기발효 FTA는 수출기업의 생산성과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.
  - 기발효 FTA는 수출 증진이라는 경로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가에 기여함.
  - 생산성 효과는 FTA 발효 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화된 반면, 고용 효과는 주로 FTA 발효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.

## 3. 정책적 시사점

### 1) FTA의 효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

- 관세 철폐로 인한 수출 확대를 잣대로 FTA를 평가할 경우, FTA의 효과는 과소평가될 수 있으며, 관세 인하 효과가 상대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절대적 근거가 되어서는 안됨.
  - FTA는 기본적으로 관세감축 효과를 통해 교역을 증대시키지만,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양국 간 호혜적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.
- 정책적 측면에서 수출 증대에 중점을 두어 FTA의 효과를 평가하거나 홍보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며, 적극적인 자세로 수입을 포함한 교역의 증대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득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음.
  - 예를 들어 한·칠레 FTA 이후 대칠레 무역적자의 확대는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의 구리 수입이 칠레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됨.
  - 같은 맥락에서, FTA 체결 이후 EFTA로부터의 수입도 국내 제조업 생산에 필수적인 기계류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 우리나라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.

- DDA 다자협상이 부진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에게 FTA는 차선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.
  - FTA의 교역증대 효과는 무역창출은 물론 무역전환에 의해서도 나타나는데, 한·칠레 FTA처럼 어떤 FTA는 역외국에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음.
  - 이는 FTA가 WTO 다자간 무역자유화협정과는 달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, 다른 한편으로는 한 국가와 FTA를 체결하지 않았을 때 그 국가가 다른 상대국과 FTA를 체결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시사함.

## 2)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

- FTA의 수출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FTA 체결 상대국의 시장 및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고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.
  - FTA는 신규 기업에 수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의 외연적 성장에 기여하며, 이러한 수출기회 확대의 주된 수혜자는 대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이 될 수 있음.
  -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서는 특히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책임 있고 통일된 정보망의 구축이 요구됨.
- 세계경기침체와 같은 부정적 경제충격이 발생했을 때 수출 중소기업이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.
  -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,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세계경기침체와 같은 대외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음.
  - 대외경제가 불안정할 때 유동성 지원제도와 구조조정 지원제도 등 중소기업이 부정적 경제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책이 요구됨.
- FTA의 경제적 이익은 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할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 정책이 필요함.
  - 그동안 정부는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, 아직까지 한·칠레 FTA를 제외한 우리 기업의 FTA 활용률은 그다지 높지 않음.
  - FTA 특혜관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체계의 내실화도 필요하나, 무엇보다 지속적인 추가 협상을 통해 까다로운 통관 절차와 같은 비효율적 제도를 개선하고 개방의 수준을 높이려는 근본적인 노력이 요구됨.

### 3)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확대와 질적 개선

- 외국인직접투자의 긍정적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둔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정책이 필요함.
  - 외국인직접투자로 발생한 수익의 대부분이 본국으로 송금될 경우, 투자수혜국이 얻는 경제적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음.
  -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해외자금 중 대부업을 포함한 금융업, 부동산 임대업 등이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은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그만큼 제한적임을 시사함.
  - 또한 국내의 경제상황에 따라 쉽게 유출입이 될 수 있는 외국인투자는 국내 경기의 변동성을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음.
- Greenfield형 FDI에 현금지원제도 및 여타 재정지원제도를 통해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이 지속적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.
  - 선행연구에 따르면, 외국인직접투자의 형태 중에서 직접 생산시설을 설립하는 Greenfield형 FDI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가장 큼.
  - 2012년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지수는 0.143으로 OECD 국가 평균인 0.083과 비OECD 국가 평균인 0.14보다도 높은 상태로 우리나라의 투자규제 수준을 단기적으로 OECD 국가 평균 정도로 떨어뜨려야 할 필요가 있음.

### 4) 서비스 산업 주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촉진

- 서비스 산업 중심의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정책을 통해 투자 유치의 성공 확률을 높여야 함.
  - FTA 체결국 중 싱가포르와 EFTA가 FTA 발효 이후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것처럼 FTA의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효과는 주로 선진국과의 FTA에서 나타남.
  - 본 연구의 분석 대상 FTA에서 제외된 한·미, 한·EU FTA의 효과를 고려한다면 국내 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.
- 선진 해외기업의 국내 서비스 산업 진출을 활용하여 낙후된 국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함.
  - 우리나라의 2011년 서비스 산업 생산성은 약 5만 달러로 미국과 EU 회원국에 크게 뒤지고 홍콩, 싱가포르, 대만,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임.
  - 서비스업에 대한 선진국의 노하우(know-how)를 적극 습득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식기반서비스



및 제조업서비스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의 해외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정책이 요구됨.

## 5) 한·미 FTA와 한·EU FTA의 효과 전망

- 한·미 FTA와 한·EU FTA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수출 확대보다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증가로 나타날 전망이다.
  - 한·EFTA FTA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선진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가격경쟁력 이전에 경쟁국과 비교하여 차별화된 우위를 갖는 제품, 즉 품질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선진국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제품이 필요함.
  - 본 연구에 따르면, 후진국 FTA와는 달리 선진국과의 FTA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.
  
- 중장기적 수출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부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국내 서비스 생산성 향상이 한·미, 한·EU FTA 활용의 현실적 목표가 될 것임.
  - 한·미, 한·EU FTA를 통해 단기적인 수출 증대보다는 이들 국가들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정밀 기계 및 장비 등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입부담 경감으로 중장기적 수출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.
  - 선진국과의 FTA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미국과 EU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가 보다 현실적인 단기 목표가 될 것이며,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.

